

<’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 의료가 취약한 300여 개 농촌 마을, 6만여 명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 전체 17.7%(’22년 통계청)
-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 9.3(’22년 통계청)
- * 의료기관 수 : 군지역 6,097개(8.0%), 시지역 33,276(43.5), 구지역 37,045(48.5)(23.1분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 (농업인 행복버스) 110회, 4만 여 명 → (농촌 왕진버스) 300회 내외, 6만 여 명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 (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농촌 왕진버스 사업신청 (1.22. 주간) → 사업대상자 선정(2.26. 주간) → 사업시행 (3월 이후)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농촌 왕진버스 사업 개요

2.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최봉순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홍경희 (044-201-1574)



□ 추진배경

- 농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의료·복지 등 인프라 부족
* 의료기관 수('23.1분기 기준) : 시지역 33,276, 구 37,045, 군 6,097개(전국 대비 8.0%)
- 농촌의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에 의료서비스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촌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및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시행주체) 지자체, 농협
- (지원대상)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 주민 등
- (사업비) 3,180백만원
- 사업비 2,880백만원(국비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운영비 300백만원
- (지원내용) 의료단체 또는 병의원 등과 협업하여 의료가 취약한 농촌에 양한방, 치과·안과·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연간 약 300회 내외)

□ 기대효과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농촌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3월부터 달리는 왕진버스 운영 시작

- 각 지자체 농촌 왕진버스 사업신청(1.22 주간)
→ 사업대상자 선정(2.26주간) → 사업시행(3월 이후)



농촌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 거주 60세 이상 농촌주민, 농업인, 취약계층에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검진 등 제공
- 32억 원 예산(국비기준), 연간 300회 내외 운영

농촌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

-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높은 편
*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 전체 17.7%('22년 통계청)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9.3일('22년 통계청)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농촌주민 건강증진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